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3월 12일(주일) 제1433호



2023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

다음세대를 위한 부르짖음!

3월 15일까지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

다음세대를 위해 교사와 부모의 부르짖음이 뜨겁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가 3월 15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파워스테이션(차세대 찬양팀) 찬양,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기도회 인도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다음세대를 돌

보는 신앙교사'는 지난 3월 8일(수)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올랐다. 파워스테이션(차세대 찬양팀)의 찬양, 장광열 장로 기도, 강부호 목사 설교,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8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부호 목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대로 전수하기' (시 78:1-8)를 주제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차세대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면서 "교사의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차세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세대,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는 차세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류애신 코치(평택온누리교회 꿈방)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차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고, 조은정 교사(수원온누리교회 꿈방)는 "차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땅'을 회복시키는 작은 실천

이면지 활용, 온라인 명세서 받기

"이면지를 더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려고 양치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주제는 '땅'이다.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면지 활용하기, 종이영수증 대신 온라인 명세서 받기, 화장지나 일회용 물티슈 적게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다.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은 자연분해가 어렵고, 매립하면 500년 지나야 분해된다. 그렇다고 소각하면 각종 독성 물질, 발암 물질, 중금속,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환경을 크게 위협한다.

체리앱에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참가 소감과 사진 등을 공유하면 더욱 뜻깊다. 체리앱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하고, 'MY단체'에 온누리교회를 등록한 다음 '캠페인'란에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선택하면 사진과 소감 등을 남길 수 있다.



<체리앱>

/ 김영선 기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3월 28일 개강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가 3월 28일(화) 개강한다.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다. 3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이번 학기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온라인커뮤니티 담당)의 <생명의 삶> 묵상 말씀, 소그룹 모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NGO"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3월 18~19일, 전화, 홈페이지에서 참여

3월 18일(토)과 19일(일)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NGO'를 주제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홈페이지(QR코드)에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25개국 24개 마을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국제개발 NGO다.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어린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관련기사 6면).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는 "NGO 더멋진세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김없이 복음이 꽃피고 있다"면서 "NGO 더멋진세상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달려가도록,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NGO가 되도록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로마서 15:22~33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목적이 교리적인 논쟁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적 목적을 위해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교의 도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선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선교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쁨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주후 57년 경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 로마 제국 동쪽 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쪽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 성도들과 얼마 동안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곧 선교단체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는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24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서버나(스페인)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롬 1:11)고 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얼마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영적 전쟁이 매우 심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바울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휴식도 취하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후원을 기대하는 이유는 스페인이 복음의 불모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 교회는 그래도 재정

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으로 가기 원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후원에 관한 것을 잠시 언급한 것 외에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후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쁨의 일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논란이 되고, 다툼이 되고, 어려워집니다.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교회는 곧 선교 단체가 됩니다. 바울 시대에는 선교 단체가 따로 없었습니다. 교회가 곧 선교 단체였습니다. 안디옥교회가 곧 안디옥 선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복음 안에서 잘 세움으로 로마 교회가 곧 로마 선교회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로마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자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동쪽 지역에 회개할 일을 계속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동부 지역의 일이 잘 마무리되었고, “여기까지다”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확인했기에 새로운 지역, 서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메리카 대륙 동부 지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서부를 향해 개척해 나가듯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스페인은 문명 지역의 거의 끝부분, 당시로 말하면 땅 끝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미개척 된 많은 땅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 지역에서는 땅 끝과 같은 지역이 스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교회를 먼저 방문해서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전달하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에서 송금하는 체계가 없었기에 사람들이 일일이 전달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향후 일정과 계획 등을 보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뜻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이었

습니다.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로마 교회를 먼저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동쪽 지역에 더 초점을 두도록 했고, 예루살렘교회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는 아시아 지역에 더 머물며 사역하고자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빌립보교회가 탄생하고, 마케도니아 대륙으로 건너가 사역해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이 시급하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로마 교회를 경유해서 가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는데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루살렘에 들러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서버나(스페인)로 가고자 한다는 계획을 편지에 담아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 개 지역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입니다. 이 세 지역을 사도 바울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포함해야 할 선교의 중요한 영역, 총체적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포함해야 할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선교의 시급성

첫째, 예루살렘교회를 향해서 구제선교의 시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빛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25~27절). ‘그러나 지금은’이라는 단어는 바울은 곧바로 로마 교회에 가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원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을 먼저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빛을 갚는 일과 마찬가지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왔으니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물 가운데는 바울에

“하나님의 꿈은 기도 속에 파묻혀야 열매 맺습니다.
위대한 꿈일수록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은 함께하는 합력, 합심, 중보기도입니다.”

대한 후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 진정한 향기는 어디에서 날까요? 강제적, 의무적으로 하는 일에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일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향기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향기는 지원함에서 나옵니다.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지원해서 헌신함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십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서는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모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기쁘게 지원해서 드려진 헌금을 예루살렘교회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지구촌에 기근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후원이 있지만, 여전히 가난의 탓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일부분을 나눠서 끊임없이 도와야 합니다. 선교에서 구제는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먹여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먹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리지 않습니다. 시급한 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와 구호가 선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방개척선교의 중요성

둘째,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지역은 스페인입니다. 전방개척선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2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28절).

‘이 열매’는 구제헌금입니다. 바울은 예루

살렘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성도들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로마 제국의 서쪽 변방, 땅 끝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First and Best.’ 첫 번째 그리고 최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최초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가장 모범적인 사역자가 바울입니다. 1~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그는 또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4차 전도여행을 꿈꾸는 바울의 멈추지 않는 열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꾸었던 스페인 선교의 꿈으로 인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로마서)를 썼던 것 자체가 더 큰 열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직접 선교를 했어도 열매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로마서)가 기록된 통로가 됨으로써 전 세계에 미친 복음의 영향력은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페인 선교를 꿈꾼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꿈꾸는 사람들의 목적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상명령, 위대한 계명

셋째, 바울이 바라보았던 로마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충만한 복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야 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충만한 복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사명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교회 안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과 계명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상명령이 있고, 위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심으로 복음 안에서 함께 충만하게 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복이요, 위로의 복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묵상한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흘러넘칠 때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바울이 꿈꿨던 전방개척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와 같은 지역에 구제선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역사는 중보기도의 역사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는 곧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아멘”(30~33절).

세 가지 기도제목입니다.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배격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구제 봉사가 열납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로마 교회와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위대한 기도가 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기도 속에 파묻혀야 열매 맺습니다. 위대한 꿈일수록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함께 하는 합력, 합심, 중보 기도입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 만나는 모든 고난과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함께 마음을 다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다윈의 로트바일러 ‘리처드 도킨스’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무신론자는 기독교를 지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적 혹은 전투적 무신론자라고도 부른다. 이를 대표하는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다. 스티븐 홀(Stephen S. Hall)은 〈Discover〉라는 잡지에서 그에게 ‘다윈의 경찰견(Rottweiler)’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토마스 헉슬리의 생김새와 역할에 비유해서 ‘다윈의 불독’이라 불렀던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 사납고 공격적인 도킨스의 역할과 생김새를 비유해서 ‘로트바일러’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도킨스는 옥스퍼드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1966년 받았다. 당시 연구주제는 동물의 의사결정 모델에 대한 것이었다. 지도교수는 니콜라스 틴베르겐(Nikolaas Tinbergen)으로 동물행동학 연구결과를 사람의 자폐증 치료에 적용한 공로로 1973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도킨스는 UC버클리에서 1967년부터 69년까지 동물학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베트남전 반전운동에 참여했다. 1970년 옥스퍼드 강사로 복귀했는데 70년대 심각한 불경기과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국가 연구비가 끊기면서 연구보다 저술 활동에 집중했다. 이 시기 쓴 저서가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 1976년)이다. 이 책은 진화론을 적극 지지하며 새롭고 흥미를 끄는 생각을 풀어나간 데다가 스승의 노벨상 수상에 힘입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후에도 도킨스는 〈확장된 표현형〉(The extended phenotype, 1982년), 〈눈먼 시계공〉(Blind watchmaker, 1986년) 등 진화론 옹호에 집중했다.

그가 본격적인 진화론 옹호자로서 기독교 저격수로 등장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멤버인 찰스 시모니(Charles Simonyi)의 지원을 받는 석좌교수로 임명된 1995년부터다. 〈에덴 밖의 강〉(River out of Eden, 1995년), 〈무지개를 풀며〉(Unweaving the rainbow, 1998년), 〈악마의 사도〉(A devil's chaplain, 2003년), 〈만들어진 신〉(God delusion, 2006년) 등 기독교를 공격하는 책들과 10편 이상의 다큐멘타리를 통해서 도킨스는 하나님의 창조를 공격하면서 진화론을 설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런던의 2층 버스 측면에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걸, 그러나 이제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는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 ‘무신론자 버스 캠페인’(2008~2009년)도 주도했다.

많은 사람은 도킨스의 학력 때문에 그가 과학자로서 연구결과에 근거한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진화론 이념을 전파하는 대중 선동가로 완전히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는 그가 동료평가를 받은 학술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그의 대표작 〈이기적 유전자〉는 첫 페이지부터 사실과 동떨어진 단정으로 시작되고, 그 단정을 근거로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근거 없는 가정 후에 모든 것은 다윈이 밝힌 것으로 단정한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진리의 시금석에서 분별해야 한다. 예수님에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다.”

“만약 우주의 다른 곳에서 지적으로 뛰어난 생물이 지구를 방문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문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은 ‘당신들은 진화를 알아냈는가?’일 것이다. 지구의 생물체는 자신 중의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30억 년 동안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살았다. 진실을 밝힌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었다.”

둘째, 도킨스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DNA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어떤 설명도 없이 존재를 가정하면서 시작한다.

“어느 시점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분자가 우연히 생겨났다. 이들을 자기복제자(self replicator)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자기복제자는 DNA 혹은 RNA를 지칭한다. DNA의 염기서열에는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연한 결합에 의한 무작위적 염기서열은 기능적인 단백질의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또 단백질인 효소 없이는 자기복제가 불가능하다. 이기적 유전자의 주장은 동물 행동을 관찰하는 연구를 수행했던 도킨스에게는 상상해 볼 만한 이야기겠지만, 세포생물학이나 분자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도무지 설득력이 없는 몰상식한 이야기이다. 유전자의 이기성이나 밈(meme)이라는 개념이 세포분자생물학 분야의 논문에서 인용될 수 없는 것은 그 주장이 과학적 방법으로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는 그저 믿음을 요구하는 이념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라면 진위를 따져보지도 않고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칼 세이건, 유발 하라리, 재레드 다이아몬드 등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과학적 혹은 역사적 가정과 버무려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무신론의 이야기꾼들이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진리의 시금석에서 분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어긋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리일 수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갈 1:7-8).

특별기고

과학과 과학주의의 분별하기

기독교인에게 과학이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해서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만물에 깃들인 그의 신성과 능력을 맛보는 달콤한 여정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행위이다. 선하고 친절하신 하나님은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자연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도록 허락하셨다(롬 1:20). 발명의 지혜도 주셨다. 고성능 현미경으로 하나님의 섬세하신 능력을 보거나 고성능 망원경으로 끝없는 우주의 신비스러움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준다. 이 모든 복잡성과 역동성으로 가득찬 우주 만물에 깃들인 철저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과 편안함을 보장하신다. 인간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계신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끝으로 지으신 이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오묘하다(시편 8:1-4). 이처럼 과학

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과학주의(scientism)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질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궁극적 실재인 것으로 인식하는 자연주의(naturalism)적 세계관의 하나이다.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떠한 초자연적 존재나 현상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이다. 과학주의는 합리적 증거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의 특성과 가속적으로 확장되는 과학 시대라는 시대 주류의 갑옷을 입은 매우 강력한 비기독교적 세계관이다. 무엇보다 과학주의는 그 내용과 정신이 일반적인 공교육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합리주의(rationalism)와 인본주의(humanism)의 속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들의 신앙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존귀한 존재이다. 하지만 자연

주의에서 인간은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기계와 같은 존재로 인식된다. 과학주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나 감정 역시 물질의 반응이나 작용의 결과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옥시토신(oxytocin)이라는 호르몬이 인간의 사회성과 도덕성을 만드는 허브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과학주의에 근거한 주장들은 이미 일반적인 심리학 전공 서적에서 과학적 중심이론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검증된 학문의 이름으로 교육되고 있다.

과학주의 세계관에 의하면 인간의 실재는 물질이므로 죽음과 함께 소멸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이란 개념이 없다. 그러므로 과학주의 세계관에서의 행복은 철저하게 현재 시점(now)과 여기(there)에서의 항상성 상태(homeostatic state)의 성취에 있을 수밖에 없다. 또 과학주의에서의 역사관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

속으로서 역사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관과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

오늘날 과학주의는 기독교를 증거주의에 미흡한 비과학적이고, 현대 사조에 뒤처지는 고리타분한 사상으로 몰아가며 교육과 문화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풍성한 신앙교육과 동시에 끝없이 밀려오는 세속적 세계관에 대한 대응력을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에게 철저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지금 교회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간병범죄’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문지호 집사
(병원전도사역팀장,
의료윤리연구회장)

얼마 전 38년 동안 돌봐 온 뇌병변 지적장애 1급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에서 경감을 받았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중증 장애인 환자를 끝없이 간병하는 일은 살인까지 생각하게 하는 극단적인 고통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이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도 이 어머니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간병범죄 양상

오랜 간병생활에 지친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것을 ‘간병살인’이라고 부른다.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간병살인으로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동반자살자를 포함해서 2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해 164명, 한 달에 14명꼴이다. 간병의 한계에 부딪혀 발생하는 간병범죄는 고령화도 큰 원인을 제공한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46건의 간병살인이 발생했다. 매주 한 건씩 발생한 꼴이다.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老老)간병,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돌보는 노장(老長)간병, 병든 부모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다중(多重)간병, 대체 간병인이 없는 독박간병은 인간을 한계 상황까지 몰아간다. 기한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극심한 간병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과 체력 저하를 가져오고, 우울증으로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 빈곤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심각한 경제적 빈곤은 피간병인의 치료 문제를 넘어 간병인의 의식주라는 삶의 기본 요건마저 위협한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고, 인간적인 삶이 박탈당하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더하여 치매 환자의 망상과 폭력, 만성질환자의 폭언이나 인지 장애는 지친 간병인에게 분노를 일으켜 우발적 살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간병인을 멸시하는 태도와 함께 자신을 죽여달라는 환자의 집요한 요청도 간병살인을 유발하는 형태 중 하나다. 간병범죄는 전적으로 가해자인 간병인의 책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 두터운 가족에서 시작된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환자의 돌봄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위로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간병이 친족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끝나기에 간병범죄는 더욱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보통 1~2등급까지로 제한적이다. 3~4등급인 환자도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독거노인의 경우 입소가 가능하지만, 3~4등급은 대부분 일 최대 4시간 수준의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실상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치매 노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신체 활동을 못하는 뇌성마비나 발달 장애,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을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간병범죄를 막는 방법

간병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간병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국민이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보안을 시급히 해야 한다.

첫째, 간병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서 간병인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 미국은 2006년 레스피트 케어(respite care)를 통해 간병을 일시적으로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을 권리로 인정했다. 레스피트 케어는 간병 스태프를 파견해서 간병인이 병상을 떠나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약을 통해 야간이나 주

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병상을 일단 벗어나면 이성적으로 가족을 마주할 힘이 생겨 환자의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영국도 2014년 간병관련법을 마련해 간병인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일본은 2010년 케어러(carer)지원추진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에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간병의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지방 공공단체에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간병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요구했다. 기업에는 종업원이 일과 간병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간병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돌봄 윤리 교육의 확대다. 요양원이나 돌봄 시설에 가족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내 가족이 혹시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윤리적인 전문 간병인에게 마음 놓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돌봄의 윤리는 모든 인간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태어나자마자 돌봄이 필요했던 인간은 살면서 중증 장애인이 되거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적인 돌봄은 자칫 폭력적일 수 있다. 인지 손상으로 자신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돌봄의 윤리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충분한 돌봄을 받으려면 돌봄 서비스 직군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

게 경제적 보상 없이 도덕적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간병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 의료는 그동안 치료 중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제는 돌봄 중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집중할 때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최고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다. 살인죄의 평균 양형이 12.1년인 것에 비해 간병살인은 절반 이하인 5.4년이었다. 극단적 상황이라는 절박감과 그 간의 희생이 감경 사유로 고려된 것이다. 간병인의 극한 상황을 아무리 동정한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꺼뜨린 행위를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 역시 생명 경시 사상을 경계하고 있다. 동일한 간병살인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있거나 심각하지 않은 신체적·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감경이 없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피간병인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촉탁살인은 윤리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 시키는 것이 불법이고, 비윤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죽여달라고 요청해도 인간에게 나타나

는 죽음의 충동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의 충동만 심어주셨다. 죽음의 충동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 요인을 제거하면 죽음의 충동은 사라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외적 요인을 제거해 생명의 충동을 지켜줘야 한다. 안타깝게 벌어진 간병살인 사건은 이중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죽은 피해자와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인 고통을 평생 져야 하는 살아남은 피해자다. 많은 간병인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살아남았어도 형 집행이 끝난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야기들은 간병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절히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한 간병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간병인의 권리와 돌봄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인간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와 끝없는 간병 피로로 절망한 간병인을 함께 살려내야 한다. 나는 병원 전도사역팀을 맡으며 아픈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편지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편지를 보낸 가정의 아픔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교회에 손 내밀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환자의 돌봄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일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은 복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위로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정기후원 약정을 앞두고

1. 생명을 살리는 NGO 2. 선교하는 NGO

생명을 살리는 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은 2010년 12월 창립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지구촌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첫 사역인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인도적지원 사업(긴급구호 및 난민)’ 등을 전개하며 인종과 이념, 종교, 지역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초기에는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에서 어린이 생명살리기(Children Rescue Program) 사업을 진행했다. 국내외 환자지원 사업도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25개국 100여 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자선 콘서트, 네팔 HIV 감염 아동지원사업,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 긴급구호 등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다.

특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사업과 이 시대의 사명인 인도적 지원 사업(긴급구호, 난민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취약계층 생명살리기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모자보건), HIV 감염 아동지원, 고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돕는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외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섬기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모태에서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 건강 관리 받아야 하는 아동, 부모를 잃거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소외되어 어려운 삶을 사는 여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NGO 더멋진세상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산모, 영유아, 아동 등을 먼저 돕는 이유는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모자보건사업 및 보건소 건축, 모자보건영양 증진사업, HIV 감염 아동지원사업 등을 12개 국가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모자보건 사업을 한 르완다 무니기나 지역은 수도 키갈리에서 1시간 거리인데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지역이다. 낮은 농업 생산량과 저소득으로 인한 높은 빈곤율(37.4%)이 만성 영양실조를 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과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영양실조가 영아 및 모성 사망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성 영양실조 비율이 38%고, 모성사망률이 10만 명 중에 248명이나 된다.

인도적지원 사업(긴급구호, 난민사역)은 전 세계 난민이 1억 명을 넘어선 이 시대의 사명이다. NGO 더멋진세상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난당한 주민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긴급구호와 조기복구

사업, 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난민들이 희망을 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민지원사업 등 인도적 기반에 의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현재 NGO 더멋진세상은 시리아, 이라크 난민(요르단, 레바논), 우크라이나 난민(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국내), 남수단 난민(우간다), 튀르키예 난민들을 섬기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다. 지난 12년 동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듯이 열악한 지역에서 펼쳐진 NGO 더멋진세상의 활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눔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NGO 더멋진세상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한다. / 최진혁 실장(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난민사역과 변화 그리고 희망

“난민이 되고 나서 처음 3년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현지 정부도 우왕좌왕하고, 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낙심으로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든지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난민의 삶에 익숙해지고, 구호단체의 손길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을 점차 잃게 됩니다. 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난민이라는 신분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난민 신분이기엔 사회적인 차별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로막히고 무너지는 좌절 속에서도 회복되는 역사와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 난민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슬람 선교 14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에워싼 이슬람 국가들이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담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시리아 난민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무슬림 형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줍니다. ‘A’라는 형제는 무슬림이었는데, 이라크에서 기독교 위성방송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심해져 홀로 요르단에 오게 되었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행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전도를 잘하는 전도가 되었습니다.”

/ 강은혜 선교사(중동A국)

불안한 엄마에서 든든한 엄마로!

“저는 카루비샤(Karubisha)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38세이고,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로서 불안하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데도 왜 아프고 약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몇 달 뒤 다시 임신했습니다. 아직 어린 두 자녀에게 충분한 수유와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영양결핍으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자주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해도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카루비샤마을에서 NGO 더멋진세상이 진행하는 영양중재법(PDHearth)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교육을 받으면서 저뿐 아니라 이곳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게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먹는 음식을 줬던 저의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되었고, 어린 자녀에게는 어떤 음식과 영양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양실조에 대한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했더니 영양결핍이었던 제 아이가 18개월 때 5kg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15kg까지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하고, 질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 신자 바키라(르완다)

특집

1. 고령사회와 교회 2.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3.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한국 교회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1995년 37만 명에서 2013년 121만 명으로 급증했다.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2014년에는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24.4%를 기록하면서 ‘초고령 교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문제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도 가져온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실버세대 성도들을 위한 변화와 대책이 시급하다. 이 지면에서는 실버세대가 증가하는 초고령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버세대를 위한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미래목회연구원과 아르폰테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26개 교회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온 응답이다. 고령 성도의 과반(50%)이 교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다. 이 응답만큼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있을까?

실버세대는 돌봄 대상 되고 싶지 않다!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적 대책을 세우기 전에 먼저 고민해야 할 게 있다. 실버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100세 시대에 과연 65세가 ‘노인’에 해당할까? 노인은 사회적으로 돌봄 대상으로 인식 받는 사람들이다. 교회에서도 고령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 사역을 적지 않게 하고 있다. 어쩌면 교회마저 고령 성도들을 돌봄 대상으로 여기며 편하게 모시려 고만 하느니 모르겠다. 그런데 실버세대는 돌봄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성도의 73.9%가 교회에서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교회가 자신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대해달라는 응답은 6.1%밖에 되지 않았다. “성도 한 명으로 대해달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다. 고령의 성도들이 즐겁게 봉사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니어 사역’이 필요하다.

시니어 맞춤사역 그것이 필요하다!

시니어에게 꼭 맞는 맞춤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 성도들의 관심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 고령 성도들은 죽음, 건강,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녀 성도 72%가 “죽음에 대해 생

각한다”고 응답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26%)는 응답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고령 성도의 개인적인 관심사는 ‘건강’(73%)과 ‘신앙생활’(52%)이 1, 2위를 차지했다. 나이 들어 몸이 노쇠해지면서 건강과 죽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여가가 길어지면서 삶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것도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교회에서 실버세대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죽음에 대한 교육,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성숙한 신앙생활(영성)을 돕는 강좌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 나이 들수록 가족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다. 고령 성도의 개인적인 관심사 3~5위가 ‘자녀(또는 손자)의 취업, 결혼, 출산’(23%), ‘가족과의 관계’(15%), ‘가족 생계 및 경제 문제’(14%)다. 가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음세대에게 지식과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 열망도 크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생활의 지혜를 전수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노인들에게 인기 많은 것이다. 교회에서도 실버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신앙과 지혜를 전수할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에는 고령 성도들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사역이 있다. ‘시니어 아카데미’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노인 돌봄 사역에서 벗어나 실버세대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정환 목사(양재 시니어 아카데미 담당)는 고령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버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영적인 변화와 갈망’, ‘다음세대에게 신앙 전수’, ‘믿음 안에서 자기 삶 정리’입니다.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교회에서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 시니어들, 자녀와 손자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은 시니어들, 동년배와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싶은 시니어들, 믿음 안에서 남은 삶을 정리하고 싶은 시니어들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말고도 온누리교회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 인생 2막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헌신하도록 돕는 ‘갈렙선교학교’와 ‘은빛날개’다. 갈렙선교학교는 돕는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이다. 선교사를 돕는 실질적인 계획과 그 실행방법을 가르쳐 준다. 은퇴 이후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와 대처법을 배우고, 노년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갈렙처럼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은빛날개세미나는 은퇴 이후 크리스천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크리스천들의 은퇴 이후 삶이 휴식, 쉼, 오락을 넘어서 운동하고, 일거리를 찾고, 예배하도록 돕는다.

사역칼럼



백승웅 장로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

봄기운이 감도는 어느 날, 귀한 초대를 받았다.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 스태프들의 식탁교제 자리였다. 지난해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 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사역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모였다. 올해 새 학기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였다.

이정환 목사의 준비가 돋보였다. 목사님은 은퇴 시니어들의 생각을 들려주셨다. 시니어들이 바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다. ‘영적인 변화와 갈망’, ‘다음세대에게 신앙 전수 소망’, ‘믿음 안에서 자기 삶 정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서 책 <실버세대를 위한 신앙가

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하셨다.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 새 학기 목회에 적용하겠노라는 목사님의 계획을 듣고 모두 호응했다.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는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시작됐다. 2007년 3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는 말씀을 따라 노년기 질병과 고독, 빈곤과 역할상실에서 오는 소외감 극복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2008년 3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 열매가 그해 양재 시니어 아카데미의 첫 개강이었다. 그동안 이 과정을 위해 수고하셨던 담당 목사님(유선식, 최승규, 김성원, 정재욱)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는 평생학습에 준하는 교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전문강사 섭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건전한 오락과 놀이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서

실버세대의 건강한 생활로 연결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실버세대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적인 특기와 전문지식을 발표하는 기회도 드렸다. 실버세대들이 존재감을 표현하며 각자의 자긍심을 고취했다. 알찬 일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10명 내외 스태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치, 유머와 섬김이 있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체력과 정신력이 감퇴되고, 열정과 의욕을 잃어간다. 실버세대를 섬길 때는 그 특징을 감안해서 격려와 공감으로 세워줘야 한다. 호기심을 유발하며 새로움으로 활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인생 황금기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시니어 아카데미 스태프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지금까지 그 일을 잘 실행해 왔다. 참으로 감사하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내가 늘 즐겨 묵상하는 말씀이다.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소망한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소원한다.

시대적인 관심사에 시선이 쏠린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웰빙(Well-being)’, 행복하게 늙어가는 ‘웰에이징(Well-aging)’, 아름다운 죽음 ‘웰다잉(Well-dying)’이 바로 그것이다. 신앙 안에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이 이루어지는 시니어들이 되기를 바란다. 풍요로운 노년을 살면서 아름답게 늙어간다.

맛있는 말씀 해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엡 1:7)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다. 여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18세 때 학교폭력을 당하고,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을 괴롭힌 친구들을 찾아가 복수극을 펼친다. 그중에서 크리스천들의 관심을 끄는 출연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라(김하어)라는 화가다. 그녀는 문동은을 괴롭힌 가해자 중 한 명인데 대형 교회 목사의 딸로 나온다. 극 중에서 이사라는 자신에게 복수하러 찾아온 문동은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이제 천국 못 가. 나는 갈 수 있어.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거든.”

이 대사를 들은 주인공과 시청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이 대사를 듣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는 분이신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라의 말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인가? 오래전 화제가 된 영화 ‘밀양’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밀양에 정착한 주인공 신애(전도연)는 유괴범에게 아들을 잃고 만다. 고통 가운데 신앙에 귀의해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고자 감옥을 찾아간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 유괴범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마음의 평안과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한다. 유괴범의 이야기를 들은 신애는 자신이 용서할 기회조차 하나님께 빼앗겼다는 사실에 절규한다. ‘더 글로리’와 ‘밀양’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 용서는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값싼 것인지를 질문하게 만든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은 구원과 죄 용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큰 깨달음이다.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죄(罪)란 윤리, 도덕, 법률 및 규범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게 아니

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 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것, 그리고 인간 스스로 삶의 주인이자 우상이 된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분리, 인간 중심의 교만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법률을 잘 지켜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인간의 어두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영적인 측면이다. 인간 사회에서 범한 모든 윤리, 도덕, 사회적 죄값은 하나님께 용서받겠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의 결과는 달게 받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죄악을 용서받았다면

개인의 고백으로 합리화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받은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의 태도와 모습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영화 ‘밀양’ 속 가해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자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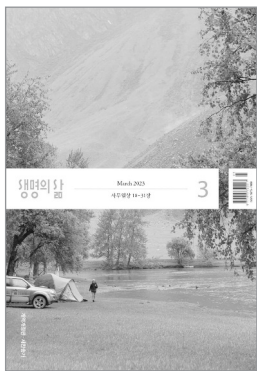


오승규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의 방식

3월 13일~19일
사무엘상 22:1~25:13



목상포인트 1: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은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의 시작점이 된다. 다윗의 가족뿐 아니라 사울 왕권 아래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거나 가난한 이들이 다윗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그곳에 모인다.

한편 사울은 다윗을 도운 이들을 반역죄로 몰아 처단한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광기 어린 판결이요, 불의한 처사다.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묵상하자.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자 그의 가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400여 명이 모여든다. 한편 도엑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사울에게 이른다. 사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신을 속인 줄 모르고 그를 도운 것이다. 사울은 검증 절차 없이 다윗의 반역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도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이기에 거리낌 없이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성읍을 진멸한다.

목상포인트 2: 다윗은 도망자 신세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동족을 외면하지 않고 블레셋에 침략당한 그일라를 위해 싸운다. 반면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그일라를 공격하려 한다. 다윗과 사울의 대조적 모습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인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유다 성읍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타작마당을 빼앗는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이후 전쟁에 나서서 블레셋을 물리친다. 사울이 자신을 잡기 위해 그일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도피한다.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해도 결코 잡을 수 없음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호위하시기 때문이다. 한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십 광야로 도망한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한다.

목상포인트 3: 다윗은 자신을 위한 절호의 기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공의로 판결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수를 선대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의 방식을 묵상하자.

▶십 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한다. 사울 일행이 마온 황무지(광야)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상황에 이르렀을 때 블레셋이 급작스럽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다. 사울은 다윗

추적하기를 멈추고 전쟁터로 달려간다. 그 이후 엔게디로 피신한 다윗을 찾으러 군사 3천 명을 이끌고 출동한다.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벤다. 다윗의 선대에 감동한 사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잠시 평화가 찾아온다. 바란 광야에서 지낼 때 다윗은 큰 부자인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들을 보낸다. 악한 나발은 다윗 일행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다윗을 모욕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자기 왕권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사울은 망설임 없이 악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의 선택이 어떠한지 돌아보자.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 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이는 누구인가? 그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자. ▶원수 값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다윗은 선악 간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을 선대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9)는 말씀을 기억하자. 역을 한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엄마를 위해서!

엄마의 건강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암 말기로 병원에 계신 엄마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엄마는 평생 저희 남매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던 아빠 대신 가장 역할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엄마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저와 동생은 큰 어려움 없이 성장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엄마가 이제는 인생의 짐을 조금 벗어 놓고 노년을 즐기시기를 바랐는데, 지난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가는 엄마를 보며 엄마를 잃을까 무서운 마음에 온종일 눈물이 납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떠나시지 않을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엄마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가 잘 되어서 암세포가 사라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엄마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주시고. 온종일 병원 침대에 누워 죽음만 생각하는 엄마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엄마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Q&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소망을 가져라!”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다음 달에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카드값을 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다. 우리는 알 수 없다”와 같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이 시작되었고, 신학도 생겨났다. 결핍은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필요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다.

그래서 성경도 인간의 결핍과 무기력함에 대한 결론을 절망으로 매듭짓지 않고, 소망으로 연결하고 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독교 진리가 주는 최고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를 느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시며,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결핍이 있는가가 아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가가 중요하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대안과 가치를 따라 바벨탑을 쌓으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살게 될 낙원은 우리 힘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헬라어 ‘후토퍼스’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곳은 찾을 수도, 도달할 수도

없다.

구원이라는 단어도 ‘신적수동태’가 사용된다. 구원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찾고 발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 마치 성령이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성육신 하신 것과 같다.

하나님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하신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소망을 가져라.”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신앙의 괴리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한다. 오히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현실은 우리가 타협하고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숙제와 같다. 단순히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따라가고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초월해야 할 영역이다.

만약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면, 비록 현실의 문제가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불안과 염려의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대홍 목사
(요셉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말의 뒷’을 놓지 말라!

한 사람이 “다음에 만나면 내가 밥 한번 살게. 알겠지?”라고 제안한다. 상대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사주세요”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갑자기 제안했던 사람이 화를 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대접하겠다고 말해야지 언제까지 대접만 받을 생각이니? 이 기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 앞에서 듣는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무척 당황한다. 대답했던 사람은 먼저 말한 사람이 쳐 놓은 뒷에 제대로 걸려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화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다. 자신의 기대와 속셈을 철저히 숨기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교묘하게 시험하면서 말의 뒷을 놔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의 속 마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상대방은 호의인 줄 알고 승낙을 했는데, 호의 뒤에 숨겨진 뒤틀린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아자’ 하며 뒤늦게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식의 대화가 몇 번 오간다면 누구나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생각과 의중을 살피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어떤 대답을 내놓아도 정답을 맞힐 수 없는 대화 패턴이 지속되면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가장 편안한 대화 분위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뜻으로 상대방에게 왜곡없이 전달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는 것과 마음의 기대와 바람이 전혀 다르다면 건강한 의사소통과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서는 특히 왜곡없는 투명한

대화를 지향해야 한다. A라고 말하면 숨은 뜻 없이 A로 전달되어야 한다. 배우자가 B라고 말하면 그 마음도 B이며, 전달받은 배우자도 B로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화 패턴이다. 그런데 A라고 말은 하는데 숨은 마음의 바람이 B이거나 C라면 말을 듣는 배우자는 숨어 있는 의미를 찾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이다. 그나마 상대방의 숨은 마음을 잘 읽는다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상대방의 표현되지 않은 가려진 마음을 알아맞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말하고, 왜곡 혹은 굴절된 부분 없이 듣는 배우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대화를 하는 것을 부부 대화의 성장 방향으로 두어야 하겠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퀴즈를 내듯 말을 건네는 습관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라면 왜 자신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지 직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투명하게 말하는 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쏟아붓고 싶은 대로 말을 내 던지는 것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성숙하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각과 느낌, 때로 격한 느낌이 들더라도 통제되는 선에서 정직하고 성숙하고 온화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마음에 뒤틀린 부분이 많을수록 대화 가운데 뒷을 놓으려 한다. 말의 뒷을 두면서 자신도 모르게 연고자 하는 것이나 통제하려는 게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결과 속이 다른 말을 건네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한다. 자기 말의 뒷에 걸린 배우자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소심한 복수심을 표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린 시절 가족이 경직된 대화 패턴을 사용했다면 마음을 투명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경직된 가족관계에서는 정직하게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말하는 게 지 지나 격려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으로 교육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화에서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자기의 마음속 기대를 말하면 안 돼,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아”라고 강요받으면서 자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성장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을 밟았다면 배우자를 조금 더 투명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경직된 대화의 울무에 갇혀 있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퀴즈 내는 듯 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 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까지 말을 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배우자에게 실망해서 갑작스럽게 화를 표출하는 상황이라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문제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기보다 자신에게서 찾는 게 맞을 때가 있다.

배우자를 조종하기 위해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대화의 뒷을 놓았다면 건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속셈 있는 말로 배우자를 시험하는 습관이 있다면 바꾸는 게 필요하다. 나는 어떤 말로 배우자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관계에 도움이 된다. 부부 대화는 능숙한 말솜씨로 힘을 겨루는 협상이나 담판자리 같아서는 안 된다. 부부의 대화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편안하면서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기대를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독심술을 사용하면서 배우자가 한 말의 뜻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 배우자 말의 뜻이 불분명하고, 기대와 소원을 다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다시 묻고 확인할 필요도 있다. 정말 그런 뜻인지, 정말 필요가 없는지, 정말 괜찮은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 대화 가운데 숨은 의도가 있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노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가 편안한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순교를 품다

전남 영광 '야월교회' 그리고 '염산교회'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3월은 봄을 만나는 계절이다.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예고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교회력 시선으로 보면 사순절이 끼어있는 달이다. 더욱 의미 있게 사순절을 보내도록 3월의 신앙교육여행 주제를 '순교'로 정했다. '순교'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감 자체가 무겁고, 진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편이다. 이와 같은 느낌 때문에 이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고, 되도록 멀리하거나 피하고 싶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을까?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순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번 신앙교육여행지는 순교의 역사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이다.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염산면에 위치한 '야월교회'다. 야월교회는 1908년 남장로교 선교사 유진벨의 방문으로 시작된 교회다. 당시에는 육상도로가 좋지 않아서 배를 이용해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는데, 유진벨 선교사가 범성포인줄 알고 들어온 곳이 바로 야월리 포구였다. 인간



의 착오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시는 은혜를 깨닫는 대목이다. 초기에는 '염산리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했고, 선교사들이 시무했다. 그후 여러 명의 조사, 전도사, 선교사 순회로 교회가 자랐다. 1938년에는 교회당을 이전하고, 명칭도 야월교회로 변경했다.

야월교회에는 교회당 옆에 '기독교인순교기념관'이 있다. '전교인 순교'라는 전 세계 어디 역사에도 볼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교회다. 조금 더 살펴보면 순교자가 김성중(7명), 조양현(27명), 최관섭(10명), 김병환(7명) 등의 집안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순교 당한 역사는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을 던져줄 것이다.

기독교인순교기념관은 전국 교회의 헌금과 영광군청의 지원으로 건립했다. 신앙과 순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간직하고 있다. 1층에는 순교역사자료를 사진과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다. 1층에 있는 자료들을 둘러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2층에는 예배실이 있고, 순교자들의 영정, 한국 교회의 다양한 옛날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야월교회, 기독교인순교기념관 주변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순교'라는 단어를 품고 나와 우리,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대해서 묵상하면 좋겠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야월교회가 설립된 지 40년 뒤 세워진 '염산교회'다. 염산교회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전체 성도의 2/3에 해당하는 77명이 공산당들에 의해 학살당했다. 단일 교회로는 최대의 순교자를 품은 교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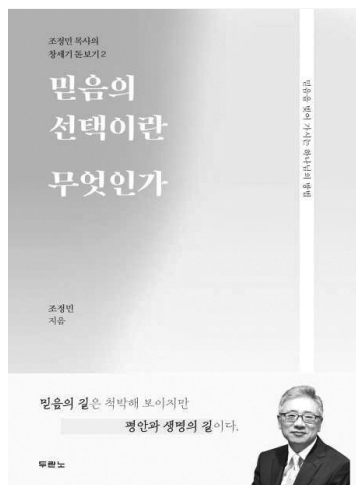
박해는 염산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행되었다. 공산당들은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성도들을 찾아가 죽창으로 찌르고, 바닷가 수문통에 돌을 달아 수장시켰다. 성도들 모두 순교자가 되었다. 찬양을 부르고 피 흘리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는 어린 동생을 달래던 언니가 "울지마라 우리는 곧 천국 간다"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은혜가 얼마나 큰 순교의 바탕 위에 세워졌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염산교회는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1호(장로교 합동교단)로 지정되었다. 2천여 평 교회 부지에 순교공원도 조성했다. 그곳에 순교자료 전시관과 순교교육관을 개관해 200여 점의 자료 및 유물을 전시하고, 77인의 순교비를 교회 앞에 세웠다. 2016년에는 교회 한편에 '염산교회 순교기념성지 77인 순교 옛 예배당'을 헌당했다. 곳곳에서 숨겨진 이야기와 순교 역사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염산교회 앞마당에는 순교자들이 메고 수장되었다는 돌들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돌을 골라 하나씩 들거나 메고 가까운 설도항 수문까지 걸을 수 있다. 돌을 짊어지고 침묵 가운데 순교를 묵상하며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전과 조금 다른 사순절 신앙교육을 경험할 것이다.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한 '놓치기 아까운 책'

하나님과 세상,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
조정민 저 | 두란노 | 16,200원

출간을 출간에 빚대어 이야기할 때가 많다. 매 출간을 순풍순풍 날듯이 할 수는 없다. 때로는 난산일 때도 있다.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인가〉(조정민 목사 저)는 그리 수월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저자의 창세기 강해 설교 총 80여 편을 전체 5권 시리즈로 출간하기로 하고 권마다 주제를 잡고 그에 맞는 숨결을 불어넣는 과정이 필요했다.

창세기 시리즈(창 6:9-19장)의 두 번째인 이 책은 '믿음'과 '선택'을 키워드로 삼았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묵직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들 한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나온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르다. 인생은 마음이 아닌 '믿음'에 달렸다. 무엇을 믿느냐, 즉 믿음의 대상에 따라 인생의 끝이 달라지고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간다. 눈 뜨자마자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부터 누구를 만날지 말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의 폭이 좁았던 과거에 비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은 피로감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선택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결정 이후 만족감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영성을 교회 안에서 빛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빛신다. 이 책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믿음을 짓는 삶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이끌어 준다.

롯이 선택한 세상을 따라가는 길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반면 아브라함이 택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척박해 보이지만, 평안과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 갈래 길을 말씀하셨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다.

갈림길에는 늘 갈등이 있듯이 믿음을 지키는 길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어렵사리 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절반만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그리스도

인은 아닌지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고, 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 다룬다.

이 책이 출간되고 1년 반 정도 지났다. 책을 편집하며 솔하게 읽은 내게 이 책이 남긴 흔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 중심적인 이유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과연 믿음으로 하는 결정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불확실성을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 복된 길임을 안다. 지금껏 믿음과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다면,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 책 일독을 권한다.

/ 박주선 편집자

2023 온누리장로사관학교 개강

3월 11일~10월 21일 서빙고 본당



지난 2021 장로사관학교.

2023 온누리장로사관학교(이하 장로사관학교)가 개강한다.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2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올해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57명이 대상이다.

장로사관학교에서는 강의(‘사도행전적 교회’, ‘온누리교회와 Acts29’,

‘바람직한 장로상’, ‘기독교 세계관’, ‘세계 복음주의 흐름과 로잔운동’, ‘온누리양육체계’, ‘목회행정과 조직’ 등), 사역지 탐방, 수련회, 리브소나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과제도 있다.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 〈온누리행전 30년〉, 〈래디컬〉, 〈기

독교세계관 바로 세우기〉 등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장로고시를 합격한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들은 오는 12월 2일 장로장립식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문의: 02-3215-3234, 320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8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fa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의 산다’를 주제로 아버지가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게 역할을 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문의: 010-8936-0382

‘진화론, 창조신앙으로 다시 보기’

진화론을 성경적인 창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돕는 세미나 ‘진화론, 창조신앙으로 다시 보기’가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창조를 버린 사람들’, 화석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등을 주제로 노회성 소장(YESEI칭연구소)이 강의한다. 회비는 4만 원. 4월 1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71

온누리 전도페스티벌!

전도사역자 200명 참석

온누리교회 전도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3월 6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전도페스티벌이 열렸다. 전도콜센터 주관으로 열린 전도페스티벌에는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폭발훈련, 전도콜센터, 공동체 및 남양주온누리교회 전도사역자 200명이 참가했다.

이날 박종길 목사는 ‘내가 원하는’를 주제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와 기적을 만드는 전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전도는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영적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현주 기자

35기 전도폭발훈련 모집

3월 13일~6월 12일 서빙고 콘서트홀

35기 전도폭발훈련생(주간반, 저녁반)을 모집한다.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콘서트홀과 온라인에서 주간반 오전 10시, 저녁반 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전도폭발훈련학교는 검증된 60년

전통의 세계적인 전도훈련이다. 과정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 전도폭발훈련을 수료하면 국제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비는 6만 원.

문의: 주간반 010-3801-1215

저녁반 010-8625-9000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와이무슬림은 이슬람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며 이슬람을 이해하고, 이

슬람권에 대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5557-8924

“재정상담으로 이웃을 섬기자”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과정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경적 재정관리, 가계부채 상담, 재정상담 등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경제정의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부채탈출119’는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

들을 위한 사역이다. 전문기관과 함께 성도들이 건강한 재정관과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오종규 팀장은 “경제 관련 직업과 달란트로 사역하고 싶은 성도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문의: 오종규 팀장 010-5550-3655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3월 21일까지 ‘청춘클래스’ 참가자 모집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대학청년부 연애·결혼 세미나 ‘청춘클래스’ 4기가 시작된다. 4월 22일(토)과 29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크리스천 미혼 싱글 청년들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3월 21일(화)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서를 작성

해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석식 제공).

청춘클래스 4기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 연애 노하우’,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 목사 사모)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가?’,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부 ‘크리스천의 행복한 이성교제’를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네일아트 실기자격증 교육생 모집

북한이탈주민 대상, 3월 21일까지

온누리교회 한누리통합팀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네일아트 실기자격증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인원 모집 완료일로부터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누리통합팀 본부(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6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FiEkEit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

육비는 무료(소정의 재료비 별도).

자립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및 취업할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있는 사람, 네일아트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 또는 이수한 사람을 우대한다. 기타 문의는 한누리통합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채널 ‘한누리네일’ 및 이메일(chek1225@naver.com)에서 하면 된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3월 15일부터 매주 수 양재 드림홀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과 회비 납부는 개강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성경에 나오는 시니어의 믿음과 삶을 배우고,

어르신들이 영과 육의 건강함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 보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 두려움, 행복 등을 주제로 조별 나눔을 한다. 특송 찬양, 레크리에이션, 특강 등도 진행된다.

문의: 010-8989-3473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이 3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와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소망을 전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호스피스는 생명 사랑이다’,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돌봄’, ‘발반사요법’ 등을 주제로 호스피스 전문 강사 7인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3월 1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7만 원.

문의: 010-3412-7966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간증



/ 이금아 권사(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하나님 이끄심 따라서...

2016년 2월 어머니학교 강의를 듣다가 우연히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홍보물을 보았다. 바로 신청하고 3월부터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수업을 들었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을 수료하고 나서는 동부요양센터에서 다른 수료자들과 함께 발 마사지 봉사를 했다.

2017년 4월 28일, 남편이 직장동료 가족 조문을 다녀오다가 차 안에서 심정지가 왔다. 동료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대학병원에 도착해 제세동기와 에크모 시술 등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거동은 일절 못하고 들을 수만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정말 많은 힘이 됐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남편이 권사님들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발 마사지를 해 주면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버님이 남편의 환해지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2017년 10월 1일에는 남편이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다.

남편이 쓰러진 지 만 5년째가 되던 지난해

오랜 병간호로 내 심신이 많이 지쳤던 것 같다. 극심한 우울감이 몰려왔다. 한참 우울감에 함몰되어 있는데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홈커밍데이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홈커밍데이에 참석했더니 정말 반갑고 친정에 온 것처럼 기쁘고 좋았다. 특강도 들었다.

내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많이 본다. 환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전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나는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선포하며 일하고 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이곳에서 배운 대로 적용하면서 도움을 주고 싶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도 할 것이다. 3월 16일부터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이 열린다. 귀한 강의를 듣고 나처럼 많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일정: 3월 16일~5월 11일
장소: 서빙고 비전홀
문의: 010-3412-7966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팀 간증



/ 오경곤 형제(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나를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 그런데 기회가 올 때마다 나는 금전을 닦했고, 시간을 닦했고, 회사를 닦았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팀으로 부르셨다. 하지만 나는 이미 정해진 회사 일정으로 피하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강하게 손을 내미셨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를 다녀왔다.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지진 피해가 매우 컸던 하타이주 이스켄데룬, 안타키아(구 안디옥)였다.

처음에는 메달라버린 감정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연민과 측은한 마음만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곧 감사가 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을 맞본 그들이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했다. 우리가 “게츠미쉬울순(폐유를 바랍니다)”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 그들은 “싸울룬(감사합니다)”이라는 말로 화답해줬다.

우리는 사랑을 전달하러 갔다가 사랑을 전달받고 돌아왔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눈에 그 현장을 담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입술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전하라는 뜻 아닐까?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를 하면서 절망과 희망, 사랑을 내 마음에 담아왔다. 그 기억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나누고, 기도하고자 한다. 단 한 번의 긴급구호가 아니라 계속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메말랐던 내 감정이 어느새 감사와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 소감



/ 신재순 형제(강남D공동체)

좋은 아버지는 좋은 남편에서!

결혼 이후 우리 부부는 징글징글하게 싸웠다. 자식에게 본인의 잘못을 떠넘기는 아버지와 남편의 빈자리를 아들에게서 찾으려는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미처버릴 것 같았다. 내 아내도 매일매일 생지옥을 겪었다. “당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너무 불행해져”라는 말로 아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아이가 없다. 아내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 아버지학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부정적이었다. 아버지학교는 문제가 많거나 가정불화가 심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버지학교에 등록하고 첫 주에 처가모임이 있어서 결석했다. 조장님께 ‘아버지와 용서’, ‘아버지께 쓰는 편지’ 등의 과제를 건네 받았다.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나에게 편지와 용서라니. 아버지학교를 그만두려 했는데, 조장님의 권면과 설득으로 편지를 두 장 썼다. 아버지께 대한 원망과 부정을 편지 두 장에 꼭 채웠다. 2주 수업에 참석했는데 온통 ‘아버지’라는 말만 들렸다. 눈물 흘리며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다른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괴로웠다.

그 다음 수업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 마음이 이유도 모르게 한결 편해졌다. 자식이 없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내 주실 아이를 떠올리게 하셨다.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이후 아내가 밤마다 축복기도 안 해주라며 내심 기대를 한다. 내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는 해봤지만, 축복기도는 처음이었고 어색한 상황인데도 진지하게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놀랐다.

아버지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남편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알고 감탄했다. 평생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 내가 저지른 잘못 이상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리라 믿는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계속 없어도 좋은 아버지의 첫 번째 기준이 좋은 남편임을 깨닫게 해준 아버지학교에 더없이 감사하다. 매일 아내에게 감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살고자 한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입술 모아 찬양하며 살고자 한다.

양지온누리교회와 상주 봉천교회의 연합



/ 김응수 성도(양지온누리교회)

공부방 아이들의 나들이

상주 봉천교회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작은 농촌 교회다. 양지온누리교회는 2019년부터 상주 봉천교회와 아름다운 연합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주 봉천교회의 창고를 개조해서 아이들 공부방으로 리모델링을 해줬다. 워낙 많은 작업이 필요해서 많은 성도가 교대로 2~3일씩 혹은 일주일 동안 상주 봉천교회에 내려가 봉사하고 섬겼다. 지난해 봄 시작한 공사는 여름에 완공되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그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편하게 모이고 있다.

공부방 아이들은 모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다.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고루고루 있다. 학습과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공부방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목사님과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소통과 친교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등 적응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먼저 안기고 친근하게 행동하며 사랑

을 주고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더 많아질 텐데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교회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상주 봉천교회 공부방 아이들을 초대했다. 토요일에는 에버랜드를 방문해서 저녁 6시까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상주 봉천교회 공부방 아이 6명 중에서 5명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한두 번 주일학교를 간 경험이 전부였다. 주일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 나누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나이에 맞춰 차세대 예배도 함께 드렸다.

기도제목이 있다. 상주 봉천교회 공부방에 필요한 차량이 지원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학습(온라인)을 도와주고 격려해 줄 선생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까지 운전과 공부방 선생님 역할을 오롯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셨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문의: 최재수 집사(010-4924-6361)

장로칼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박봉래 장로
(김포공동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로마인으로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억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것을 남용한 적 없이 겸손했다. 식민지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의인이라는 칭찬도 들었다. 기도시간에 환상을 보았고, 천사의 지시에 순종해 옥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림은 에크호우트의 1664년 작품 〈백부장 고넬료의 비전〉이다. 어둡고 구름피는 풍화적 상황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다. 백부장 곁에 넘어진 차탈은 상황의 긴박한 전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전달자의 기호이다. 백부장은 가슴을 안으며 순복을 다짐하고 있다. 바닥에 놓인 손도끼는 장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질 기호로 완벽한 해제를 말한다. 왼쪽 물통은 고넬료의 세례를 예고하는 그림 진술이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불렀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정오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옥바에 가까이 왔을 무렵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는 음성이 들렸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을 찾아와 문 앞에서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 왔으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애하시는 분이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과 방언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짐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향하게 되었다.



〈백부장 고넬료의 비전〉

사역칼럼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허윤석 팀장
(청춘클래스)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온 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요즘 청년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하는 게 참 많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N포세대 많은 청년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고민을 들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청춘클래스가 시작됐다.

청춘클래스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여러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 청춘클래스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매 기수 모집인원의 몇 배가 되는 지원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많은 청년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는 듯했다.

사역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봤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신앙생활을 꿈꾸며 배우자 기도를 해오던 청년들이었다. 청년들은 만남에 목말라 있었고, N포세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서로를 알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다. 지방에서 신청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타 교회 청년들도 많았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먼 거리를 달려 참석한 청년도 있었다. 기수가 끝날 즈음에는 모두가 짧은 시간을 아쉬워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청춘클래스 스태프들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매 기

수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청춘클래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쁜 소식은 아무래도 결혼하는 커플을 볼 때가 아닐까 싶다. 3기까지 진행하면서 두 커플이 결혼했고, 한 커플은 올해 9월 결혼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결혼한 1호 커플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주셔서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이다. 출산을 저하에 따른 심각한 인구절벽문제로 암울한 상황에 들려온 1호 커플의 임신 소식은 노아의 홍수 뒤에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잎사귀처럼 희망과 축복의 소식이었다. 청춘클래스에 참가하는 더 많은 청년이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새 생명을 낳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청춘클래스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 청춘클래스 순예배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결혼을 한 커플들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생활을 공유하며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나 역시 2006년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아들 셋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예비학교, 아버지학교, 젊은부부학교 등을 수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교회 공동체 순예배가 가정과 믿음을 지키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청춘클래스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들도 비슷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줄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 기도하기 시작했다. 많은 분의 도움으로 가정사역공동체에서 청춘클래스 수료 커플들로 구성된 순이만 들어졌다.

청춘클래스 커플들이 지속적으로 결혼하고, 새 생명도 계속 출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청춘클래스 순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신앙에세이



김종호 목사
(서빙고 차세대)

차세대 파워웨이브 패션(Passion) 집회가 지난달 전주대학교에서 ‘Follow The Way’를 주제로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렸다. 파워웨이브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까지 720명이 모여 하나님께 주신 꿈, 사명,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뛰었다.

많은 학생이 각자의 귀한 시간과 일정을 드려 전주에 왔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사랑과 격려로 기도하며 함께 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를 이기는 미소와 섬김으로 청소년들을 도우며 응원했다. 모두 함께 뛰고 웃으며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청소년들의 고백이 나에게도 큰 도전과 울림을 주었다. 기억에 남는 학생들의 간증이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정말 행복한 일임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 성의 없이 했던 때가 많았는데, 패션 집회에서 여러 친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학업으로 바빠서 주일에 교회만 가는 느낌이었고, 기도도 소홀히 해서 죄책감이 들어 예수님을 더 멀리 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제자리에 계셨다. 힘든 일이 있거나 주저해

Follow The Way!

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울었다.”

〈누가복음〉18장에서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다.

“선하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인 데다가 어려서부터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모두 지키며 살았던 꽤 관철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네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가질 것이다. 그 후에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지도자가 슬픔에 빠진 이유는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향

한 믿음은 온전한 결단을 요구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시작이다.

차세대들이 패션 집회를 통해서 ‘Follow the Way’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했지만, 일상에서 ‘Follow the Way’의 삶을 사는 것은 불편함과 만남을 동반한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힘과 용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차세대 매일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깊어지는 힘을 주시기를, 세상의 말을 듣고 참아낼 인내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 수 있도록 차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증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쉼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울 운행

시간: 매주일 오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온누리선교재단 경력사원 모집

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자격: 대학교 2년제 이상, 경력 3년 이상

우대: 기업회계 경력자

2. 양재 전기팀 및 기관팀 경력사원(선임) 채용

업무: 전기(전기시설 및 소방관리, 전기기능사 자격증 필요), 기관(기관시설관리,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 필요)

자격: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2023년 하반기(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안내

일시: 3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가능, 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

신청: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준비: 예약금 100만 원(현금) 및 등록교인 증명서

* 예비 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등록교인증명서' 지참

신청: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 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약.

문의: 결혼예약담당(02-570-750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고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 (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010-8285-6435

양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음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음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 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아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 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프론트/백엔드 개발자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부천 O32. 322. 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O42. 825. 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O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에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세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터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르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INTERNATIONAL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우리는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멋진세상은 전세계 25개 국가, 24개 마을의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긴급구호 활동과 난민을 돕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NGO

차세대 어린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약한 산모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과 함께 건강한 자립을 돕습니다.



선교하는 NGO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땅 끝까지 달려가는 더멋진세상. 더멋진세상이 가는 곳에는 희망이 싹트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생명을 살리고, 선교로 이어집니다.
온누리교회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사) 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정기후원



증액후원